

따뜻함과 넉넉함과 편안함을 주는 도서관

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을 찾았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 협회 사무국에서 가기에는 꽤 멀었다. 하지만 도서관 주변 환경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찾아가기는 수월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선정 : 오른쪽에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현수막을 볼 수 있다.〉

도서관 앞에 다다르니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현수막이 반갑게 우리를 맞았다. 올 8월에 열리는 2006 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된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도서관이용자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같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 크고 예쁜 현수막을 제작해 도서관 정문에 붙여놓았다.

우리는 기분 좋게 도서관 입구로 들어섰다. 지난 2004년 도서관 증축으로 더 크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서관의 역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1층에 설치된 사인판을 따라서 2층 사무실로 들어섰다. 아담하고 생동감 넘치는 사무실이었다. 차분하고 인상이 좋은 이한주 관장과 사서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도서관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개요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중랑구 묵1동에 위치해 있으며, 1999년 3월 당시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민간위탁 공공 도서관으로 개관했다. 지난 2001년에는 문화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 도서관 부문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며 중랑구 내 도서관의 입지를 굳건히 했다. 그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이용자 등으로 도서관의 증축 필요성이 제기돼 2004년 11월에는 도서관을 지상 4층, 지하1층 규모로 증축하여 재개관했다.

현재 총 29명의 일꾼들이 도서관을 이끌어가고 있다. 도서관장서는 117,801권, 연간 총이용자는 1,200,000명, 1일 평균 이용자수는 3,939명, 1일 평균 대출은 651명, 1,052권 정도로 이용이 굉장히 활발함을 알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좋은 시설과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가 많다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면목정보도서관이 추가 개관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구 45만인 중랑구에 도서관은 단 1곳 밖에 없었고, 노원구와 지리상으로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중랑구와 노원구 두 구의 주민들에게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 1층에는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미디어자료실, 장애인·노약자실, 전시실, 실내·옥외 휴게실이, 2층에는 종합자료실, 전자정보실, 사무실 등이, 3층에는 개인학습실과 옥외휴게실이, 4층에는 문화교실과 강당 등이 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이색 공간

어린이자료실과 유아자료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과 유아자료실은 다른 공공도서관들에 비해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기에도 시원스럽고 여유로움이 묻어나는 큰 나무 모형이 자료실 내에 자리잡고 있었다. 도서관에서의 나무 한 그루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 나무는 일상 생활의 습터를 떠올리게 하는데, 이를 통해 도서관이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아자료실 풍경〉



〈어린이자료실 풍경〉

평일 낮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도 많은 이용자가 책읽기를 즐기고 있었다. 넓은 공간에서 아이들과 어머니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은 역동적인 도서관의 모습을 실감케 한다. 또한 어머니와 아이가 다정한 모습으로 책을 읽는 모습들로 가득하던 그 공간은 별천지였다.

미디어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맞은편에 미디어자료실이 위치해 있다. 다른 공공도서관에서는 별도의 미디어 자료실을 보지 못했기에 궁금증이 더해졌다. 미디어자료실 내에도 이용자가 꽤 많았는데, 시원한 도서관에서 잡지와 신문을 읽으며 여유로움을 만끽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미디어자료실 풍경〉

미디어자료실에서는 회원증 소지자에 한해 비도서자료도 관내·관외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비치자료는 연속간행물, 신문, 지역신문, 관보, 비디오, CD-ROM, 오디오CD, DVD 등이었다.

장애·노약자실

현재 공공도서관들은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하다고들 말한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1층에 그것도 찾기 쉬운 출입구 가까이 장애·노약자실이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활발하게 이용되는 그



〈장애·노약자실 풍경〉

모습은 흥미롭기까지 했다. 거의 매일 도서관을 오는 이용자들은 사서와 이미 꽤 친절한 친구가 되어있었다.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옥외휴게실

1층을 둘러보고 나니 창문 너머로 조그마한 마당이 보였다. 궁금해서 나가보니 한쪽에는 옹기들이 놓여있고, 중간에는 벤치와 나무들이 있었다. 단독주택의 조그마한 앞마당 같은 아기자기한 느낌이었다. 그곳은 이용자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휴식공간이었다.



〈옥외휴게실 풍경〉

활발한 활동

학교도서관과의 협력

중랑구는 학교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로 평가받고 있다. 송곡정보산업고등학교, 송곡여고, 송곡고등학교 등 학교도서관 운동의 중심에 있는 도서관이 모여있다. 이에 지난 5월 17일 중랑구 사서교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수업 없는 토요일에 초·중·고등학생 대상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 학교별 추천도서목록을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 관내 학교 학생들의 도서관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일, 도서관 행사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서교사가 협조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로 이야기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문고지원사업

2004년에 진행된 도서관 중축 공사 기간에 사서들이

각 동 마을문고에 파견되어 마을문고 운영자들과 함께 문고를 정비하고 DB구축작업을 수행했다. 이에 중랑구 관내 마을문고 통합DB를 완성하여 웹 상에서 공유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중랑구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할 수 있다.

이런 활성화를 기반으로 현재 중랑구에는 28개의 문고가 생겼고,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는 매년 문고지원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문고에 자료구입을 지원해준다. 자료구입을 위해서 문고별 구입희망도서목록을 취합하고, 주문목록을 알려주며, 주문, 납품, 납품도서의 검수, 대금지급까지의 세세한 부분을 모두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고의 전산화 작업과 문고에서 무슨일이든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언제고 달려간다고 한다. 도서관의 규모나 이용자수로 볼 때 결코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고지원을 전담하는 사서가 있었으며, 이한주 관장과 담당직원인 조미아 사서는 중랑구 내 28개 문고를 모두 탐방했다는 점이다. 도서관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는 척척 해내고 있는 점이 놀라웠다.

중국 송문구도서관과의 교류

중국 북경시 송문구도서관과의 교류는 2001년경부터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에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는 매년 중국에서 요청하는 자료목록을 받아 100여권씩 자료를 구입해 송문도서관에 전달해준다고 한다. 송문구도서관에서도 역시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를 사서 보내준다고 한다. 자료교환 이외에도 도서관간 정보교류를 위해 격년으로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실 강좌도 운영하고 있었다. 마침 우리가 방문했던 금요일에도 어머니들을 위한 독서지도 강좌가 열리고 있었는데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어머니들을 위한 독서지도 강좌 모습〉

외에도 어린이 독서교실, 도서관 현장학습,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달 행사, 문화극장, 전시회, 강연회, 음악회 등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수시로 열리고 있다.

방문도서관을 위한 준비

을 8월에 열리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방문 도서관으로 선정된 이후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이용자 및 도서관을 방문할 외국인들에게 활기찬 도서관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우선 동네 주민들에게 도서관을 홍보하기 위해 대형 현수막을 제작해서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도서관을 방문할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중랑구가 예전에 옹기티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1층 야외 마당에서 옹기전시 및 문화재보유자의 제작 실연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도서관 홍보물을 다국어용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다. 도서관 안내를 위해서는 실별 정비와 지역 내에서 통역을 해줄 자원봉사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도약하는 문화핵심기관으로의 자리를 굳건히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크지만 참 따뜻하고 넉넉하고 편안한 도서관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도서관 일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다양한 도서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주민들, 어르신들과 장애우들을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는 관장 이하 직원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깊었다.

이한주 관장은 “우리도서관의 보물은 직원들이다. 성실하고 일 잘하는 직원들 덕분에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직원들은 역시 “관장님이 도서관에 관심이 많으시고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잘 이끌어주시며 직원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상하 간의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좋은 분위기의 도서관이니 그 많은 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흐뭇하였다.

규모가 큰 도서관일수록 세세한 부분을 놓치기 쉽다. 그러나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나름대로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직원과 직원 간의, 이용자와 직원 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노력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았다.

인구 45만인 중랑구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공도서관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한 곳 뿐이었지만 지난 2005년 11월 11일에 면목정보도서관이 추가 개관했고, 관내 문고지원 사업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학교도서관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제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이들 도서관에 대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 내 문화핵심기관으로 그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

책으로 여는 미래, 미래를 여는 문! 이라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문구처럼 중랑구의 미래는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다. (글 : 심효정, 사진 : 최인경)

7월에는 부천문화정보센터를 찾아갑니다.